

## 성 마인라드(861년 사망)와 콘스탄스의 성 콘라드(975년 사망)

9세기 초에, 고요함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인라드라고하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젊은 수도사가 있었다. 그가 불링겐에 있는 작은 수도원의 교사가 되려고 취리히 시내를 지나가는 도중에 왕족 출신인 힐데가르트 대수도원장을 만나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시는 3피트짜리의 아름다운 목제 천주의 모친 상을 받고서 깊이 감동하였다.

불링겐의 수도원에 머무르는 동안, 젊은 마인라드 수도사는 커가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호수 반대쪽에 있는 숲으로 뒤덮인 산을 숙소의 창밖으로 자주 바라보곤 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바랐던 것은 오래전에 은둔생활을 했던 위대한 성인들처럼 숲속에서 홀로 기도와 참회와 명상의 생활을 하는 은수자가 되는 것이었다. 마침내 장상들의 허락을 받고 828년의 어느 날, 소중히 간직한 성모님 상을 끌어안고 바닥이 평탄하고 넓은 작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에첼 산에 있는 깊은 숲속으로 은수자가 되러 떠났다.

혼자만의 은둔처에 자리를 잡자 바로 그는 두 마리의 어린 까마귀가 사는 동지를 발견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길들였다. 아마도 그가 갖고 있던 목상의 아기 예수님이 한 손에 작은 새를 쥐고 계셨기 때문이었으리라. 마인라드는 이 산에서 7년을 지냈는데 한 가지 사실—성자로서의 평판이 날로 높아만 가는 그에게 이끌려 점점 더 많은 순례자가 그를 방문하러 오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는 행복한 젊은 은수자였다.

그리하여 그는 목상을 안고 두 친구—까마귀—와 함께 보잘것없는 은둔처를 떠났다.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다가 어느 날 삼면이 언덕으로 둘러싸인 좁은 대지 위에 높이 솟은 소나무들 가운데에 맑은 물이 흐르는, 반짝이는 샘을 발견했다. 여기에 그는 자그마한 오두막집과 경당을 짓고 그 안에 성모님 상을 소중히 모셨다. 충직한 까마귀들은 벽에 세워진 십자가 상 양쪽에 자리 잡고는 거룩한 은수자가 일하거나 기도하는 동안에 그를 바라볼 때가 많았다. 그는 홀로 지내는 것이 모든 점에서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무꾼이 그의 은둔처를 발견하자 바로 순례자들이 그의 축복을 받고 조언을 구하러 다시 몰려들었다. 한 번은 그가 있던 수도원의 수사들 몇 명이 그를 방문하러 왔는데 밤중에 그들 중 한 명이 마인라드가 일곱 살쯤 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년과 성무일과를 암송하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년은 깜짝 놀란 수사에게 다가와서 나중에 일어날 사건을 은밀하게

예언하였다.

20년 이상이나 기도와 참회의 생활을 한 다음인 861년 1월 21일 성녀 아그네스의 축일 아침에 그의 작은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중에 하느님께서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미사임을 알려주셨다.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는 성체를 임종 성체인 것처럼 경건하게 받아 모셨다.

그러고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눈물을 머금은 채, 늙은 은수자는 아름다운 성모님 상을 바라보며 성모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고 이제 맞이할 자기 죽음이 아드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마인라드가 깊은 숲속에서 홀로 살던 오랜 세월 동안 그는 거기에 서식하던 곰이나 늑대나 아니면 다른 야생동물들에게 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먹이를 찾는 야수같이 냉혹한 범죄자 두 명이 많은 사람이 이 은수자를 만나러 순례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가 분명히 값진 선물을 갖고 있고 외로운 은둔처에 많은 재물을 숨겨두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추운 겨울밤에 그들은 깊이 쌓인 눈길을 헤치며 숲속에 있는 그의 은둔처로 갔다. 그들이 다가왔을 때, 마인라드는 미사를 막 마쳤는데 충직한 까마귀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경고하는 소리를 들었다. 천상의 기쁨을 입술에 지닌 미소를 지으며 그는 사랑이 가득한 친절함 태도로 두 사람을 맞이하고는 빵과 포도주를 내놓았다. 그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내놓으라고 거칠게 요구하자, 그는 겸손하게 그들을 작은 경당 안으로 안내하여 제대 위쪽에 있는 평범한 목상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것 말고 다른 보물은 없소.”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고, 머리를 숙이고는 조용히 말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면, 가지고……”

두 강도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거룩한 늙은 은수자를 잡고는 큰 몽둥이로 잔혹하게 때려죽였다. 그러는 동안 까마귀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비명을 지르면서 그들의 정든 친구를 도우려고 살인자들의 이마를 쪼아대었으나 허사였다.

그러고 나서 범죄자들은 성자의 시체를 오두막집 안의 마른 나뭇잎으로 만든 침상에 끌어다 놓고는 보물을 숨겨놓았으리라고 짐작되는 곳을 뒤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향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꼈다. 은수자의 침대에 세워놓은 두 개의 초가 어찌 된 일인지 저절로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두 살인자는 공포에 질려 취리히로 달아났다. 그러나 이들을 고발하는 하느님의 손가락처럼, 마인라드의 두 마리 까마귀는 살인자들이 체포되어 범행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 이들을 집요하게 쫓아가며 공격하였다.

그가 속했던 수도회의 수사들이 거룩한 순교자의 시신을 콘스탄스 근처에 있는 라이헤나우 수도원으로 운구했다. 바로, 이 수도원에서 그는 수도회에 입회하고 사제로 서품받았었다.

이어서 여러 해 동안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깊은 숲속에 버려져 있는 보잘것없는 경당을 찾아왔고 몇몇 은수자들은 거기에 정착했다. 906년에 스트라스부르의 베노 성인이 옛 구조물을 복원하고 거기에 새 구조물을 추가했다. 그리고 934년에 역시 스트라스부르 출신인 에버하드 성인이 와서 큰 수도원과 교회의 건립에 착수하였는데, 이 교회는 길이가 8과 반 야드 그리고 폭이 6야드에 불과한 마인라드의 거룩한 작은 경당을 둘러싸며 보호하는 것이었다. 948년 여름에 공사가 완공되자, 아인지델른의 초대 대수도원장이 된 에버하드는 은수자들의 모후 성당을 축성하고 봉헌하기 위하여 콘스탄스의 주교인 콘라드 성인을 초청하였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주교와 다수의 제국의 왕자들 그리고 기사들이 포함된 콘라드 일행은 성 십자가 현양축일 전날인 948년 9월 13일에 깊은 숲속 은둔처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인지델른의 모후 성당에서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다. 거룩한 콘스탄스의 주교는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이른 저녁에 자기 숙소로 물러갔다. 피곤했지만 여느 때처럼 자정 전에 일어나서 몇 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다음 날 아침에 축성하기로 되어있는 성당에 기도하러 갔다. 그가 복되신 동정녀에게 이 거룩한 성전을 받아 주시어 앞으로 세세 대대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치유받고 도움받는 순례자들의 중심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정확히 자정에 성 콘라드와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곡조를 노래하는 수없이 많은 조화로운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올려다보고 그는 놀라움에 차서 제단 주변이 가장 맑은 날 한낮의 햇빛보다 만물을 더 밝게 비추는 빛으로 차 있고 제대가 장엄한 축제를 위해 빛을 가득히 받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끄는 천사들의 행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몇은 성가대원으로서 천상 음악을 노래하였고, 다른 천사들은 흔들리는 금향로를 지니고 제대 앞에 자리 잡았다.

천사들에 뒤이어 성 베드로가 손에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짚고 따라왔고, 그 뒤로는 성 마태오, 성 루카 그리고 성 요한이 뒤따랐고, 교회의 위대한 박사들인 성 그레고리오, 성 어거스틴 그리고 성 암브로시오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고는 부제와 차 부제의 제복을 입은 순교 성인들인 라우렌시오와 스테파노가 따라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의용 겹옷과 보라색 캐줄라를 입으신 대사제로서, 우리 주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시며 나타나셨다. 그리고 숨 막히는듯한 절정의 순간에, 주님이신 성자 바로 앞에서 이 성전을 영원히 원죄 없으신 천주의 모친에게 봉헌하려는 미사가 시작되었는데, 성모님 자신은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눈부시게 빛나는 자태로 성당의 제대 위쪽에 자리 잡으셨다.

말없이 경외심을 갖고 성 콘라드는 이 엄청난 미사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가 정신을 집중하여 보니 이 장엄한 의식은 교회에서 규정한 성전 축성을 위한 전례의 가장 상세한 부분까지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상투스에서 천사들은 “거룩하신 하느님 영광스러운 동정녀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곳에 오신 성모님의 아드님은 복되시고 그의 통치는 끝이 없도다!”라고 노래했다.

한 시간 이상이 지나서, 왕 중의 왕께서는 이 성전을 복되신 어머니에게 은수자들의 모후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봉헌하고 나서 저명한 성인들과 천사들의 무리를 거느리고 하늘의 임금님 자리로 되돌아가셨다. 아름다운 동정녀께서도 자신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목상을 남겨두고 사라지셨다. 노래는 그치고 밝은 빛은 마술처럼 꺼졌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 축성된 성전이 정확히 그전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룩한 콘스탄스의 주교는 방금 목격한 놀라운 일에 도취하여 몇 시간 동안이나 무릎을 꿇고 명상에 잠겼다. 그날 아침 늦게, 고위 성직자들이 모두 모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이제 봉헌 의식을 시작할 때라고 겸손하게 알렸다. 아직도 깊은 감동하며 그는 성당이 간밤에 하느님 자신의 손으로 기적적으로 축성되었다고 확고하게 선언하였다. 그러나 대수도원장 에버하드와 다른 관계자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러 온 의식을 즉시 시작하자고 주장하자 성 콘라드는 그들 말을 따랐다. 그러자 또다른 놀라운 초자연적인 중재가 있었으니, 주교가 제대의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자, 대성당은 갑자기 강력하고도 장엄한 목소리로 가득 차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세 번 외쳤다.

“멈추라! 멈추라 형제여. 이 성당은 거룩하게 축성되었도다!”

나중에 국가와 교회의 최고 당국자들이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나서 964년에 오토 대제와 성 콘라드의 입회하에 레오 8세 교황이 이 기적적인 축성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교황 확인 교서를 발행하였다.

머지않아 아인지델른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서너 개의 순례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난 9세기 동안 이곳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은 모친의 자비로운 중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위대하고도 아름답게 자리 잡은 성전으로 유명했다. 여러 세기 동안 매년 10만 명 이상-때로는 20만 명 이상-의 신앙심이 깊은 순례자들이 아인지델른을 방문했다. 대성당은 프랑스 혁명 전쟁 중에 성전이 약탈당할 때까지 여섯 번이나 큰 화재를 당했으나 모후의 소성당은 단 한 번도 파손된 적이 없었다. 지금 있는 대성당과 수도원은 18세기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서 전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적 기념물 중의 하나이다. 1861년에 베네딕도회 수도사들은 수도회 창립자인 마인라드 성인의 1,000주기를 장엄하게 추모하였는데, 그의 시신은 그가 시성된 해인 1039년에 그

가 사랑하던 높은 산중의 운둔처로 다시 운구되어 왔었다. 그리고 1948년 9월 14일에 아인지델른은 기적적인 축성 1,000주년을 기념하였다.

작지만 강한 기독교 민주국가인 스위스의 수호성인은 플뤼에의 성 니콜라우스인데 그는 은수자로서 자주 아인지델른으로 순례를 떠나곤 했었다. 이 나라가 우리 시대가 겪은 국가 간의 전쟁이나 내전 중에서도 불운을 겪은 모든 국가를 위한 구호와 자선 활동에 형제애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화와 복지를 누리는 은자의 나라를 이룩한 것은 아마도 상당 부분이 은수자의 모후 덕분이리라. 스위스가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이 가톨릭 신자이며 아인지델른이 속해 있는 슈비츠주는 스위스의 심장이다.

성모님 덕분에 유럽의 심장이자 스위스의 심장은 천상 은총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통로로 존재해 오고 있다.

출전 : 성모님을 만난 성인들

저자 : Raphael Brown

번역자 : 김형기 스테파노